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전자·첨단 기업들이 지식 경쟁력요인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실제 활용수준간의 격차분석을 수행하고, 지식경쟁력을 제고하는 요인을 탐색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지식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연구목적을 두로 있으며, 본 연구 결과 나타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제 지식 경영이라는 용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비록 크게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않지만, 그 경쟁 우위는 상당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고객 욕구의 변화에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나, 그 관심만큼은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지적 자산이나, 지식 경영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둘째, 내부 프로세서의 개선이라는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인적 자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지만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을 뿐 지식공유 시스템과 같은 지식 경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셋째, 고객의 가치에서는 고객의 욕구 파악만이 경쟁우위 영역에 있고 다른 요인들은 높은 중요도 인식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환경요인을 고려한 후 그 결과를 보면, 지식경영과 실제 경쟁력간에는 여전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영혁신과 지식능력 요인 지표는 대체적으로 고객의 다양성이 복잡할수록, 수요예측이 곤란할수록, 내부프로세서 요인 지표들 중 동기 부여와 성과평가 능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신제품·신기술 변화 속도가 빠를수록, 재무적 요인 지표에서는 고객층이 다양할수록, 수요예측이 어려울수록, 고객 가치 요인 지표는 고객층이 다양할수록, 수요예측이 어려울수록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지식경쟁력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8. 우리 나라 국채선물 수익률과 현물 수익률간의 선도-지연관계 분석

해운경영학과 황 두 건
지도교수 이 기 환

국채선물은 1999년 9월 28일 한국 선물 거래소가 중장기 금리 채권 상품으로 상장한지 1년만에 달러선물과 함께 최고의 거래량을 자랑하며 한국 선물 거래소의 주요 상품이 되었다.

국채 선물의 가장 큰 경제적 기능은 국내 금융 시장에도 중장기 금리에 대한 위험 관리수단이 제공된다는 점과 가격 발견 기능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선물의 가격은 선물 시장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이나 기업 등의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미래 어느 시점의 금리 수준 추이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기에 현물 시장에서의 선도성 기능을 가진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선물의 가격 발견 기능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최근 1년 동안의 일일 간격의 국채 선물 수익률과 현물 수익률 사이의 시간적 상호 연관 관계를 통해 선물 시장의 선도성을 실증 분석하였다.

가격 발견 기능에 대한 연구는 새로운 시장 정보가 현물 시장에 앞서 선물 시장에 유입됨으

로써 나타날 수 있는 현물 가격 변동에 대한 선물 시장의 예측 정보의 존재를 다루는 것이다. 이 분석을 위해 단위근 검정, 공적분 검정, 벡터 오차 수정 모형 등을 이용하였다

최근 1년간 4개의 물을 분석한 결과 유의한 선도 효과를 발견해 낼 수 있었으며 거래량이 많아진 2000년 6월과 9월물에선 현물의 선도성도 같이 나타났다. 전반적인 수치는 선물의 선행 효과를 보여 주고 있지만 6월물과 9월물에서부터 현물의 선도성도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주목할만한 결과이다. 따라서 국제선물시장과 현물 시장간은 피드백(feedback)이 존재하며 불빈번 거래의 효과 역시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익률의 선도-지연 관계는 대략 2일 정도 선물 수익률의 선도 효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아직 국제선물 시장이 초기 단계라서 안정적이지 못하지만 선물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과 같은 선물 고유의 기능을 조금씩 수행해 나가고 있음을 반증한 좋은 예가 될 것이다.

국내 국제 선물 시장이 태동한지 1년 정도 지난 시점이라 표본 자료의 기간이 매우 짧다. 그래서 표본자료의 문제로 가격의 변동성, 거래량 형태에서 두 시장의 미시 구조적 차이를 자세히 살펴보진 못 했다. 또한 이런 이유로 두 시장간의 관계에 대한 직접적 원인들을 정확히 설명하기 힘들었다. 이것은 연구의 한계이기도 하다.

하지만 도입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 국제 선물의 실증 분석을 통해 선물 시장의 선도 효과가 있으며 효율적인 시장임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를 둔다.

9. 동북아 해양환경보존을 위한 국제법적 연구

해사법학과 노 화 섭
지도교수 김 영 구

바다는 무한한 자원의 보고이다. 따라서 인류는 삶의 영위를 위해서 바다에 의지하며 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바다는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점차 오염의 정도가 심각해져가고 있다. 특히, 동북아지역의 황해와 동해의 해양오염상태는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다.

해양오염은 육상기인, 대기기인, 해양투기, 심해저개발 등 여러 오염이 있다. 이 중 동북아지역의 경우에 있어서 해양오염은 육상기인에 의한 오염물질의 유입과 빈번한 해양사고에 의한 기름의 오염 등이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해양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 이 지역의 동북아 국가들은 여러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환경문제와 관련된 국제적 갈등으로 인접국가간 갈등과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갈등이 있다. 한국은 정부간 협상을 더 중요시하나 일본은 비공식채널을 통한 협상을 원하고 있으며, 중국이나 북한은 아직까지 환경오염문제와 관련 인식이 낮은 편이다.

한국은 양자협약으로 일본, 중국, 북한, 그리고 러시아와 협약을 맺고 있으며, 다자협약으로는 동북아환경협력회의(NEAPEC), ESCAP주관 동북아 환경협력 고위급회의(SOM), 아시아·태평양 지역 환경회의(ECO-ASIA),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그리고 최근에 개최된 한·중·일환경장관회의(TEMM)이다.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는 장거리 대기오염, 황해 및 동해오염 등의 지역환경문제를 해결하기로 했고, 또 21세기 동북아지역의 환경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현행 지역협력 채널의 연계성 미흡 및 사업중복 등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였다.